

'이재현 멀티 홈런·5타점' 삼성, 9-5로 LG 격파…리그 2위 재탈환

등록 2026.05.14 21:44:40



[서울=뉴시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이재현이 14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 솔 KBO리그 LG 트윈스와의 경기 7회 솔로홈런을 친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삼성 라이온즈 제공) 2026.05.14.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홈런 세 방을 앞세워 LG 트윈스를 꺾고 다시 2위 자리에 올랐다.

삼성은 14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 솔 KBO리그 원정 경기에서 1회 터진 이재현의 만루포와 강민호의 연속 타자 홈런에 힘입어 LG를 9-5로 눌렀다.

치열한 2위 싸움을 벌이는 두 팀의 3연전에서 삼성은 위닝시리즈를 거두고 2위(23승 1무 15패)에 올라섰다. LG(23승 16패)는 3위로 내려앉았다.

한 달 만에 다시 선발 마운드에 오른 양창섭은 5이닝 4피안타(1홈런) 2실점(1자책점) 호투로 시즌 2승째를 따냈다.

그리고 부상 회복 후 지난 12일 1군 엔트리에 복귀했던 이재현은 이날 절정의 타격감을 자랑했다.

경기 초반부터 승기를 잡는 만루포(시즌 2호)를 날린 그는 7회엔 승리에 쐐기를 박는 솔로포까지 작렬했다. 이와 더불어 강민호도 시즌 마수걸이 홈런을 비롯해 3타점을 올리며 팀 완승에 큰 힘을 보탤다.

삼성은 2회초 선두타자 르윈 디아즈가 땅볼을 치고도 상대 실책으로 출루하며 경기 초반부터 분위기를 가져왔다.

후속 박승규와 전병우의 연속 안타로 모든 베이스를 채운 삼성은 이재현이 송승기의 4구째 시속 133km 몸쪽 슬라이더를 노려 좌측 담장을 넘기는 그랜드슬램을 쏘아올리며 단숨에 4점을 싹쓸이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후속 강민호도 비거리 120m 좌월 솔로포를 때리며 삼성은 경기 초반부터 5점을 선취했다.



[서울=뉴시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강민호가 14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 솔 KBO리그 LG 트윈스와의 경기 7회 솔로홈런을 친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삼성 라이온즈 제공) 2026.05.14.

LG도 3회말 1사 후 이주현이 시즌 첫 홈런을 날리며 1점을 추격했다.

하지만 삼성은 5회초 2사 만루에 강민호가 중전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2점을 달아났다.

이어진 6회말 홍창기, 이주현의 안타, 구본혁의 볼넷으로 만든 2사 만루에 천성호의 땅볼에 상대 유격수의 실책이 겹치며 LG는 1점을 또 따라갔다. 후속 오스틴 딘은 양창섭과 13구까지 가는 승부를 벌이며 추격을 시도했으나, 삼진으로 물러나며 잔루 만루를 남겼다.

위기를 넘긴 삼성은 다시 달아나기 시작했다.

7회초 1사에 이재현은 또 한 번 좌측 담장을 넘기는 아치를 그렸다. 그는 데뷔 후 첫 멀티홈런을 잠실구장에서 달성했다.

이어 삼성은 8회초 2사 2루에 디아즈의 적시타로 1점을 더 달아가 9-2까지 격차를 벌렸다.

삼성엔 9회말 등판한 정재훈이 이주현에게 스리런을 맞으며 쉽사리 경기를 매듭짓지 못했다. 하지만 이어 등판한 이승현이 ⅓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이날 경기 승리를 확정 지었다.

LG 선발 마운드에 올랐던 송승기는 4⅓이닝 7피안타(2홈런) 7실점(6자책점)으로 무너지며 시즌 첫 패를 당했다.

이주현도 3회에 이어 9회에도 홈런포를 터트렸으나, 팀의 패배로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l@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